문재인·손학규·김두관 3파전 … 1위 과반 넘을까 촉각

민주 대선 본경선 전망

박준영 선전여부 관심

민주통합당의 29~30일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손학규·문재인·김두관·정세균 후보(기호 순)가 예상대로 본경선에 진출하고 박준영 후보도 본경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러지는 본경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됐다.

■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컷오프 통과자 (기호 순)

후보	손학규(64)	문재인(58)	박준영(65)	김두관(53)	정세균(61)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다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	내게 힘이되는 평등국가	내일이 기다려진다
경력	제 14·15·16·18대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전)민주당대표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라남도지사 전) 김대중대통령 공보수석 전) 국정홍보처장	제34대 경남도지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전) 민주당대표 전) 산업지원부 장관 전)고려대 총학생회장

◇**예비 경선 분석**=민주당은 31일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순위와 득표율은 본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표하지 않았으나 손·문·김·정 후보의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자리가 오리무중이었다. 이 상황에서 박준영 후보가 예비경선의 벽을 넘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광주·전남 후보였던 박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당원의 열렬한 지지 속에 뒤늦은 출마와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 본선 진출이라는 '정치적 성공'을 이뤄냈다. 당이 예비경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정치권에서는 일반국민의 인지도 부족을 높은 당원 지지도로 극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청 출신인 김영환 후보와 부산 출신의 김정길·조경태 후보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예비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향후 전망**=예비경선에서는 문 후보를 나머지 후보가 모두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따라서 이 같은 양상이 본경선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1,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5명의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의 대세론이 '안철수 돌풍'과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3강(문재인·손학규·김두관) 사이의 선두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전주보다 7.9%P 하락한 9.3%를 기록, 지난 1월 '힐링캠프' 출연 이후 6개월 동안 유지하던 10%대의 지지율이 무너졌다.

◇**본경선 일정**=본경선에는 당원과 비당원 구분없이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8월24일 신청이 마감된다. 문자·전화·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23일 제주에서부터 9월16일 서울까지 지역순회 방식 본경선이 개막된다.

투표 방식은 순회(현장)투표·모바일투표·투표소투표 등 3가지다. 순회투표는 전국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들,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는 당원과 국민이 대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모바일 투표는 9월4~5일, 투표소 투표는 9월5일, 순회(현장)투표는 9월6일 각각 실시된다.

9월16일 서울지역 현장투표를 끝으로 본경선이 마무리됐을 때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1·2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결선투표 결과 발표일은 9월23일로 이날까지 본경선과 동일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인터넷투표·투표소투표·순회(현장)투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투표는 9월23일 당일에 열린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대의원들과 일반당원, 국민은 각 자치 시군구에서 투표소투표(9월22일)나 모바일투표(9월18~22일)에 참가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정

◇지역 순회 경선

연번	지역	선거인단 모집마감	모바일 투표일	투표소 투표	순회 투표
1	제주	8.14(화)	8.23(목)~24(금)	8.25(토)	8.25(토)
2	울산		8.24(금)~25(토)	8.25(토)	8.26(일)
3	강원	8.17(금)	8.26(일)~27(월)	8.27(월)	8.28(화)
4	충북		8.28(화)~29(수)	8.29(수)	8.30(목)
5	전북	8.21(화)	8.30(목)~31(금)	8.31(금)	9.1(토)
6	인천		8.31(금)~9.1(토)	9.1(토)	9.2(일)
7	경남	8.24(금)	9.2(일)~3(월)	9.3(월)	9.4(화)
8	광주 전남		9.4(화)~5(수)	9.5(수)	9.6(목)
9	부산	8.28(화)	9.6(목)~7(금)	9.7(금)	9.8(토)
10	세종 대전 충남		9.7(금)~8(토)	9.8(토)	9.9(일)
11	대구 경북	9.1(토)	9.10(월)~11(화)	9.11(화)	9.12(수)
12	경기	9.4(화)	9.12(수)~14(금)	9.14(금)	9.15(토)
13	서울		9.13(목)~15(토)	9.15(토)	9.16(일)

◇**결선투표**

모바일투표	9.18(화)~22(토)
인터넷투표	9.20(목)~22(토)
투표소투표	9.22(토)
현장투표 (서울,경기,인천 대의원)	9.23(일)

본경선 진출 박준영

"대선승리 이끌것 도지사직은 유지"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뒤늦게 경선에 합류했음에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007년 대선 참패와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책임이 있는 후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후보들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당적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은 박준영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돼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사직과 관련,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경선에 나왔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릴 수 없다"며 "한 시간 늦게 자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 업무를 수행, 도정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시 분당으로 가는 통합진보

신 당권파 활로 모색 … 향후 추이 관심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신당권파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분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은 조직적인 탈당과 재창당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일반 당원을 중심으로 당 해체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지난 29일 대전에서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참여당계의 좌장인 유시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28일엔 당내 신당권파 인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도 구당권파와는 협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남아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바로 탈당하자", "당내 투쟁과 신당 창당을 병행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제는 신당권파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지다.

신당권파는 참여당·진보신당 탈당파·민주노동당 인천연합 출신으로 이뤄져 있는데 3주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 입당과 관련,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올 단계가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입장은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다. 일종에 야권대통합 또는 소통합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었었는데 지금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갤럽 안철수 42% vs 박근혜 42%

리얼미터 安 48.4% vs 朴 44.2%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30일 한국갤럽의 7월 넷째주(23~27일) 여론조사에서 박 전 위원장과 안 원장은 각각 42%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3%P 떨어졌지만 안 원장의 경우 5%P 올라 지지율 동률을 이뤘다.

지난 5~6월 박 전 위원장이 47% 안팎의 지지율로 안 원장에 10%P가량 앞섰으나 지난주 들어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결과다.

이는 안 원장이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고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 '이벤트 효과'를 누린 결과라고 한국갤럽은 해석했다.

리얼미터의 7월 넷째주 조사에서도 안 원장의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3.6%P 상승했지만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44.2%로 3.5%P 하락했다. 리얼미터의 주간 지지율에서 안 원장이 박 전 위원장에 앞선 것은 4·11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철수 'SK 최태원 구명' 논란

2003년 분식회계 구속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2003년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안 원장 측과 재계에 따르면 안 원장은 지난 200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브이소사이어티는 최 회장 주도로 2000년 9월 결성된 대기업·벤처기업의 유명 CEO들의 친목모임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 2,3세 기업인을 비롯해 안 원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이재웅 다음 사장 등 유명 벤처기업인이 회원이다.

최 회장은 당시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안 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나 그 역할이나 비중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젼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전국 지부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분과장, 지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 · 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일 정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 · 전남 동시 실시)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2.방과후교사 양성과정 3.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4.사회적 기업 지원 5.평생교육원운영지원 6.법인설립지원	1.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 이신 원장님 4.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회원가입 후 진로	**사 업 영 역**
초,중,고 방과후 교사, 창업지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각 대학평생교육원, 1:1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강사, 각대학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수련활동(적십자수련원, 정남진리조트),체험학습활동(공예체험, 수영등),수학여행, 학예발표회, 축제(음향, 조명, 무대풍선장식,레크리에이션강사,비디오촬영등)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

경매투자 지분물건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교육비 / 임장활동비등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평생 무료상담 혜택

투자자모심(이사대우)
1. 자본금 5억원이상 가지신분
2. 경매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3. 가등기 / 근저당으로 법적보장
4. 개인사무실 / 활동비등 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